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The Language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Speaking Korean and English

황 혜 신*
황 혜 정**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English and the Korean receptive competency of bilingual children with that of English and Korean monolingual children, respectively. The rel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 receptive competency of bilingual children was examined by age and gender. Subjects were 27 bilingual, 30 Korean monolingual, 24 English monolingual children. They were administered the revised form of the Peabody Pictures Vocabulary Test in Korean and English versions. Results show that bilingual children's Korean receptive competency is lower than those who spoke only Korean, and bilingual children's English receptive competency was a little lower than those who spoke only English, but the difference narrowed with age. The relati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competency in bilingual children was negative in 4- and 5-year-olds but became positive in 6-year-olds. This study shows that the two points-of-view on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children's age.

- 언어능력발달(language receptive competency)
 부가적 이중언어(additive bilingualism)
 감가적 이중언어(subtractive bilingualism)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I. 서론

미국 인구조사국(U. S. Bureau of the Census, 1995)에 의하면, 약 6백만 명의 미국 아동들이 가정에서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가지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제 한가지 언어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한가지 언어로만 의사소통하므로써 오히려 인생의 의미 있는 부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추세에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데, 이중언어 발달의 과정과 결과, 사고와 다중언어 사이의 상호작용, 다양한 연령시기에 다중언어에 체계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동의 심리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의 발달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사회적, 교육적 맥락 등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중언어(bilingualism)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중언어가 학업적, 언어적, 인지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발달이나 언어적 인식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어린 시기에 이중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 가지 언어의 습득은 다른 한 언어의 상실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도 있다(Bialystok, 1988).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지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은 '균형적 이중언어(balanced bilinguals)'의 관점에 의해서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잘 구사하는 아동이 단일언어를 사용

하는 아동에 비해서 인지, 상위인지, 상위언어, 사회언어가 우수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부가적 이중언어주의(additive bilingualism)'를 주장한다. 이러한 장점에는 언어에 대한 인식과 조절의 증가, 인지적 융통성, 유추와 분류기술의 증진, 구문과 상징에 대한 이해 등도 포함된다(Bain, 1996; Bialystok, 1988, 1991; Diaz, 1985; Galambos & Hakuta, 1988; Hakuta, 1987; Hakuta & Diaz, 1985; Kellser & Quinn, 1980). 더구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있어서 이러한 상위 언어적, 상위 인지적 장점은 취학전 시기에 이미 나타난다고 한다(Campbell & Sais, 1995; Diaz, Padilla & Weathersby, 1991).

한편, '감가적 이중언어주의(subtractive bilingualism)'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린 시기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모국어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은 지신들의 모국어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닐 때 더 잘 일어난다고 한다. 대표적 학자인 Wong(1991)은 어린 시기에 제2언어(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의 발달이 느려지며 점차 일반적인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아동 중에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모국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러한 결과가 집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져오며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발달상 높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인지 수준이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일치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취학전의 어린 나이에 이중언어에 접하는 것에 대한 영향도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주장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접하게 되는 아동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 양상은 어떠한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도 세계화의 물결에 힘입어 어린 나이부터 이중언어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모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여러 이유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 해외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이들의 이중언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에 이민 온 스페인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어린 시기에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동의 언어 발달을 전혀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Umbel, Pearson, Fernandez & Oller, 1992). 그러나 이 결과를 우리 나라 아동에게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스페인어와 영어는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구성이나 어원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영어를 접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일부 연구들은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들의 언

어능력 경향은 어떠한가?

(1)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가?

(2)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들의 영어 능력은 영어만을 하는 아동들과 차이가 있는가?

2.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 표집되었다. 우선 한국어가 모국어로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아동 30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집단 1). 이 아동들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며 부모의 교육정도나 경제수준으로 보아 중상류층에 속한다. 또 다른 한 집단은 현재 홍콩에 거주하면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영어가 모국어인 아동 24명이다(집단 2). 이들은 현재 부모의 직업을 따라 홍콩에 거주하며 홍콩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역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으로 보아 중상류층에 속한다. 마지막 집단은 홍콩에 거주하면서 이중언어(영어와 한국어)를 하는 27명의 아동들로, 한국어가 모국어이기는 하나 학

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며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집단 3). 집단 3의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유치원 등에 들어가면서 영어를 접하게 되며 대략 그 시기는 만 3세이다.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나 아동들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에서 출생하였으며 그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역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으로 보아 중상류층에 속한다.

집단 2, 3의 아동이 다니는 홍콩의 국제학교는 9시에서 2시 반까지 운영되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학교이며 집단 1의 아동이 다니는 서울의 어린이집은 9시에서 6시까지 종일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두 시설간에 운영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세 집단 아동들의 연령은 각각 만4세(48-60개월, M=53.4개월), 만5세(60-72개월, M=68.8개월), 만6세(72-84개월, M=79.1개월)이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단위: 명)

		집단 1 (한국어 아동)	집단 2 (영어 아동)	집단 3 (이중언어 아동)
성별	남	15	13	11
	여	15	11	16
연령	만 4세	10	8	6
	만 5세	10	9	12
	만 6세	10	7	9
국적	한국	30		6
	미국		9	15
	캐나다		4	2
	홍콩		1	4
	영국		10	
계		30	24	27

2. 연구도구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검사를 위하여 PPVT-R (Peabody Pictures Vocabulary Test-Revised)의 영어판과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영어 어휘력검사는 PPVT-R(Dunn & Dunn, 1981)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어휘력검사는 그림어휘력검사(PPVT-R의 한국어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5)를 사용하였다. 그림어휘력검사의 문항구성은 PPVT-R의 문항을 기초로 하고 그 외에 초등학교 교과서 언어 발달에 관한 논문들을 참고로 선별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즉,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PPVT-R의 한국어판과 영어판은 모두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며, 이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어휘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두 점수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언어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왔으며,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의 신뢰도 또한 떨어졌다(Wilen & Sweeting, 1986).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PPVT-R의 영어판과 일치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준 PPVT-R의 한국어판인 그림어휘력검사를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주었다.

검사의 점수는 각 아동들의 원 점수를 연령 규준에 의해 백분위점수로 산출하고 이를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처리하였다.

3. 연구절차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집단 3)의 영어와 한국

어 언어능력검사는 2000년 6월 3-17일에 걸쳐 홍콩에서 이루어졌다. 개별 아동을 가정 방문하여 우선 어머니들과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아동의 방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PPVT-R 영어판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PPVT-R 한국어판을 실시하였다.

영어만을 하는 아동(집단 2)의 영어 언어능력 검사는 2000년 6월 18-25일까지 홍콩의 Kowloon에 위치한 한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이 학교는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국제학교로 이곳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 영어가 모국어이며, 영어만을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PPVT-R 영어판을 실시하였다.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집단 1)의 한국어 언어능력검사는 2000년 6월 8-14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서울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PPVT-R 한국어판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 two-way ANOVA,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영어와 한국어 언어능력

1)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언어능력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한국어 어휘력은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아동들보다 많이 낮았다. <표 2>를 보면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집단 3)의 한국어 점수는 평균 21.33으로 이는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아동(집단 1)의 평균점수 81.30보다 많이 낮았다($t=-14.87, p<.001$). 따라서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의 한국어 능력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에는 17.56이었다가 5세에는 18.18로 약간 증가하나, 6세 이르러서는 36.33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연령에 따른 한국어 점수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5.04, p<.05$), Scheffe 검증 결과 4세와 6세, 5세와 6세간의 한국어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세와 5세간에는 한국어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6세가 되면서 한국어 능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점수는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4세 83.50, 5세 79.30, 6세 81.10),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가 22.63, 여아가 20.44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긴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한국어 점수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F=.58, p>.05$). 또한,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 점수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4, p>.05$).

<표 2>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과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의 한국어 점수

구분	이중언어 (집단 3)				한국어 (집단 1)				t	
	N	M	SD	F	N	M	SD	F		
연령	4세	6	17.56	13.03	5.04*	10	83.50	20.53	.18	-11.35**
	5세	12	18.18	14.16		10	79.30	12.50		-10.43**
	6세	9	36.33	11.09		10	81.10	13.08		-5.02**
성별	남	11	22.63	14.22	.14	15	85.53	13.25	2.39	-11.60**
	여	16	20.44	15.97		15	77.07	16.55		-9.70**
합계		27	21.33	15.03		30	81.30	13.08		-14.87**

* p<.05 ** p<.001

2)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영어 언어능력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영어 언어 능력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아동들보다 많이 낮았다. <표 3>을 보면 이중언어 아동(집단 3)의 영어 점수는 평균 45.52로 이는 영어만을 사용하는 아동(집단 2)의 평균점수 79.17보다 낮다($t=-5.51, p<.001$). 따라서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영어 능력은 영어만을 하는 아동의 영어 능력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영어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에는 29.00이었다가 5세에 이르면 40.75로 급격히 증가하며 이 점수는 6세에 62.89로 더 증가하였다. 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영어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12, p<.05$), Scheffe 검증결과 4세와 5세, 5세와 6세, 4세와 6세의 각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영어만을 하는 아동들의 영어 점수는 연령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세 78.88, 5세 80.22, 6세 78.14).

그러나 두 집단간의 이러한 차이는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4세와 5세의 경우 이중언어 아동과 영어 아동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t=-5.04, p<.001$; $t=-4.09, p<.01$), 6세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53, p>.05$). 즉, 영어만을 하는 아동의 영어점수는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영어점수는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두 집단간의 영어 점수의 차이는 아동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며, 이러한 차이는 6세가 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영어 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가 49.36, 여아가 42.88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긴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영어 점수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F=.94, p>.05$). 또한, 영어만을 하는 아동들의 영어 점수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98, p>.05$).

2.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능력과의 관계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집단 3)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표 3>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과 영어만을 하는 아동의 영어 점수

구분	이중언어 (그룹 3)				영어 (그룹 2)				t	
	N	Mean	S.D	F	N	Mean	S.D	F		
연령	4세	6	29.00	13.80	4.12*	8	78.88	20.99	.037	-5.03***
	5세	12	40.75	26.61		9	80.22	12.81		-4.09**
	6세	9	62.89	24.32		7	78.14	11.08		-1.53
성별	남	11	49.36	31.08	.39	11	83.09	10.40	2.24	-3.81**
	여	16	42.88	23.32		13	76.46	15.26		-3.93**
합계		27	45.52	26.38		24	79.17	14.97		-5.50***

* p<.05 ** p<.01 *** p<.001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한국어점수와 영어점수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r=-.22$)의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4> 참조).

<표 4> 이중언어 아동의 연령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 능력간의 상관관계

연령	Pearson's r
4세 (6명)	-.47
5세 (12명)	-.32
6세 (9명)	.61*
전체 (27명)	-.22

* p<.05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한국어와 영어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연령별로 살펴보기 위해 각 연령집단별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4세와 5세의 경우는 한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간에 부적인 상관관계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r=-.47, -.3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한국어 점수가 높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가 낮으며 영어 점수가 높은 아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어 점수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

다. 그러나, 6세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서 한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61, p<.05$). 즉, 6세 아동의 경우 한국어 점수가 높은 아동이 영어 점수도 높았다.

3.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성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능력과의 관계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한국어와 영어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성별로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나, 남아나 여아의 경우 한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표 5> 참조).

<표 5> 이중언어 아동의 성에 따른 한국어와 영어 능력간의 상관관계

성별	Pearson's r
남아 (11명)	-.44
여아 (16명)	-.08
전체 (27명)	-.2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를 접하고 이중언어 생활권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의 전반적인 경향과 이중언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영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은 각각 영어나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들보다 떨어지나 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며, 특히 영어의 경우는 6세가 되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의 영어나 한국어 능력이 비록 비교집단의 아동들보다 떨어지기는 해도 연령에 따른 증가를 보이는 것은 아동들의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아동의 수용 언어발달에 있어서 영어나 한국어 모두 유치원이나 기관에 다니며 그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국제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며, 한국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주말에 열리는 한국어 학교에 다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학습지를 공부하고 있어 점차 한국어 능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인 “부가적 이중언어주의(additive bilingualism)”(Bain, 1996)와 “감가적 이중언어주의(subtractive bilingualism)”(Wong, 1991)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기존의 연구는 아동의 이중언어능력에 대한 두 입장 가운데 한가지만을 주장하며 이러한 입장이 아동의 연령에 관

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적 이중언어주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들이 단 일언어를 하는 아동에 비해 언어에 대한 인식과 조절의 증가, 인지적 융통성, 유추와 분류기술의 증진, 구문과 상징에 대한 이해 등을 더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Bain, 1996; Bialystok, 1988, 1991; Diaz, 1985; Galambos & Hakuta, 1988; Hakuta, 1987; Hakuta & Diaz, 1985; Kellser & Quinn, 1980), ‘감가적 이중언어주의(subtractive bilingualism)’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린 시기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모국어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닐 때 더 잘 일어난다고 하였다(Wong,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이 4세와 5세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나 6세에 이르러서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바뀐다. 이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등에 들어간 경우 부모들이 아동의 영어만을 강조하며, 따라서 가정에서도 가능한 한 한국어의 사용은 줄이고 영어만을 강조하여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며 영어도 영어만을 하는 아동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그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6세에 이르러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아동의 영어능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들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다시 그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강조하게 되며 주말에는 한국어 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한국어 학습지를 하게 한다. 그러나 이 연

령 대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져 한국어를 강조하여도 상대적으로 영어 능력이 감소되지 않는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두 이론이 아동의 연령 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이중언어를 접하게 될 때는 두 언어간에 혼란을 가지게 되지만 이 혼란기를 거치면서 차츰 두 언어가 모두 안정되어 같이 발달해나감을 알 수 있다. 즉,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은 언어의 혼란기를 거쳐서 안정기로 접어드는데, 혼란기에는 “감가적 이중언어주의(subtractive bilingualism)”가 적용되며 안정기에는 “부가적 이중언어주의(additive bilingualism)”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중언어를 접하게 되는 아동과 그들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어린 시기에 모국어도 완전히 습득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외국어를 접한다는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혼란을 가져와 결국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혼란기와 안정기를 지나 영어와 한국어의 능력이 발달하면 더불어 전반적인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혼란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중언어의 습득기회를 포기해 버리기보다는 이 시기를 넘기고 안정기에 이르도록 아동과 부모는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혼란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정기에 들어설 수는 없으므로, 어린 나이에 이중언어를 접하게 되는 것이 혼란기를 빨리 겪고 그만큼 안정기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중언어의 발달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적인 민감성이 뛰어나고 언어발달이 빠르므로 이중언어의 발달에 있어서도 성별에 의한 차이를 기대하였으나,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나 영어능력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Bialystok(1988)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방법론에 있어서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모국어와 외국어 능력을 표준점수와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으로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과 영어만을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주었다. 또한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치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주었다.

둘째, 이중언어를 설명하는 두 이론이 각 연구마다 다르게 지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두 이론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서로 “부가적 이중언어주의(additive bilingualism)”와 “감가적 이중언어주의(subtractive bilingualism)”를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주장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 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들은 후속 연구에서 꼭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휘력 검사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휘력 검사만으로 언어능력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므로 후속연구

에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의 경우 한국판 PPVT와 영어판 PPVT 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비록 영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기는 해도 동일한 검사를 두 번 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일검사효과에 인한 변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에 거주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비교 집단으로 한국어만을 하는 아동과 영어만을 하는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그들의 수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례수를 늘려서 연구할 것이 요망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하며 모국어인 한국어 외에 다양한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게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이중언어를 하는 아동을 이중언어 사용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를 하게 되는 시기를 아동이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만 3세 경으로 보고있으나 아동마다 이중언어를 접하게 되는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더 어려서 이중언어를 경험하게 되는 아동도 있고 반대로 더 늦게 이중언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이중언어 습득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이 이중언어를 접하게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4-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이중언어 습득이 혼란기와 안정기를 거쳐 발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4세 이전에는 이중언어의 발달 양상이 어떠한지 또한 6세 이후에는 안정기가 계속되면서 이중언어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기를 거치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중단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5). 그림어휘력검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Bain, B. (1996). *Pathways to the peak of Mount Piaget and Vygotsky: Speaking and cognizing monolingually and bilingually*. Rome: Bulzoni Editore.
- Bialystock, E. (1988). Levels of bilingualism and levels of linguistic awar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60-567.
- Bialystok, E. (Ed.). (1991).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R., & Sais, E. (1995). Accelerated metalinguistic (phonological)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1-68.
- Diaz, R. M. (1985). Bilingual cognitive development: addressing three gaps in curr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56*, 1376-1388.
- Diaz, R. M., Padilla, K. A., & Weathersby, E. K. (1991). The effects of bilingualism on preschoolers' private spee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77-393.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alambos, S. J., & Hakuta, K. (1988). Subject-specific and task-specific characteristics of metalinguistic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9, 141-162.
- Hakuta, K. (1987). Degree of bilingualism and cognitive ability in mainland and Puerto Ric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72-1388.
- Hakuta, K., & Diaz, R.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bilingualism and cognitive ability: A critical discussion and some new longitudinal data. In K.E. Nelson (Ed.), *Children's language: Volume 5* (pp. 319-344). Hillsdale, NJ: Erlbaum.
- Rodriguez, J. L., Diaz, R. M., Duran, D., & Espinosa, L. (1995). The impact of bilingual preschool education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Spanish-speaking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475-490.
- Tabors, P. O. (1997). *One Child, Two languages*. Brooks Publishing Co. Umbel, V. M., Pearson, B. Z., Ferandez, M. C., & Oller, D. K. (1992). Measuring bilingual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ies. *Child Development*, 63, 1012-1020.
- U.S. Bureau of the Census (1995).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15th e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ilens, D., & Sweeting, C. (1986). Assessment of limited English proficient Hispanic stud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15, 59-75.
- Wong F. L. (1991a).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23-346.
- Wong F. L. (1991b). A question for early-childhood programs: English first or families first? *Education Week*, 10(39), 32-34.